

Joseph Kosuth의 One And Three Chairs의 작품을 인용한 작품으로써 Friend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나열한 텍스트, 작가의 친구를 찍은 인물 사진, 실제 친구라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매체로써 구성되었다.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의 여자 친구를 30여 년 만에 연락하여 어느 커피숍에 만났다. 그들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서로 많이 달라진 현재의 모습과 지난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가는 그들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전시 개막일 당일에 그녀를 초대하였다.

그 후 작가는 친구라는 영문의 사전적 의미가 기술된 사진과 그녀 전신 사진을 전시장에 설치하고 아울러 그녀의 현존을 관람객에게 공개하였다. 이때 전시장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녀의 모습과 함께 세 개의 각기 다른 의미가 상호 교환하게 된다. 의자와 같은 사물이 아닌 인간을 소재로 진행한 이 작품은 사전적 정의가 존재함에도 딱히 그러한 정의를 수용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해석의 발생을 주목한 것이며 이러한 언어적 한계에 대한 모순을 표현하고 있다.

Taken from Joseph Kosuth's One And Three Chairs, this work is composed of three formats: Text enlisting dictionary definitions of the word, "Friend", a photographic record of the artist's friends, and actual friends.

The artist invited a female friend from elementary school whom the artist have not met for the past thirty years, and discussed the much changed physical appearances and realities. The artist also photographed her and asked her to attend the opening of an exhibition.

Afterwards, the artist hung the photograph in which definition of the word "friend" in English is engraved, along with a photograph of the friend's full shot. At the same time, the audience was made known her presence at the show. At that moment,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friend and the three different meanings interacted with one another at the exhibition. This work intends to emphasize human tendency to generate (arbitrary) interpreta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dictionary definitions and, further, to express the irony of linguistic limitation by using human as a subject matter rather than an object like a chair.

“친구는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지역에서 성장하여 서로 공유할 기억을 소유한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 사라진 어떤 이를 동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친구라 부르는 일은 비참한 기분만 들게 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오래된 친구를 미화하여 그를 친구라 부르는 일 또한 위험한 일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친구를 만나고자 했으나 여전히 실패를 거듭한다. 현재 내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 냉정히 들어 주는 이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방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을 친구라 부르는 과오는 없어져야 한다.

나는 미국국적의, 유색인 혐오증은 없으나 서구 우월주의를 미약하나마 가지고 있고, 남성이며, 부유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류의 이방인과 대화하고 싶다. 나와 같은 국적,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서구의 식민사상에 분개하면서도 서구 사유체계에 열광하고 민족주의자의 성향이 생활에서 묻어나는 그러한 내 주의의 남자는 내게 이방인이다. 이런 터무니 없는 상황이 오히려 나의 피와 정신을 정화시켜준다고 믿는다. 지금 내가 바라는 친구란 이런 것이다. 고독은 나의 친구이다.”

“A friend does not indicate a person with whom one can share a memory based on the same linguistic, ethnic and regional background. Adoring and loving someone who is left behind in the past and calling him or her a friend makes one feel all the more miserable. By the same token, it is an overstatement, if not a euphemism, and even dangerous to call a person who has remained a friend for my life a friend. I have been expecting to meet a friend to whom I can ascribe more meaning only to repeatedly fail. As it always has been, it is strangers who listen to my concerns without any judgment. However, the mistake of regarding such stranger as one’s friend should not be made. “

I aspire to meet and converse with a stranger with an American nationality, who is void of racism (yet shows a minor degree of Western supremacy), who is a male, and who is wealthy, yet supportive of the Democratic Party. Someone who has the same nationality as I do, speaks the same language as I do, is neither rich nor poor, is indignant about Western-centric imperialism, yet reads translated texts with a tendency of being nationalistic, is a male and resides around me will not be my friend. I firmly believe that such absurd circumstances would purify my blood and mind. This is the kind of friend I long for now.